

# 무안군, 전국 최고 명품 송아지 육성

### 브랜드 기반 시스템 구축 송아지 3000마리 육성 2022년까지 총 12억원 투입...농가 고소득 창출

무안군은 고품질 무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브랜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명품 송아지' 육성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브랜드 송아지 3,000마리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에서 생산한 우량 송아지를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해 전자 경매시장에서 판매한

우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시행기관인 목포무안신안축협에서 가축개량, 전산 D/B구축, 유전자 검사, 고능력 정액 공급, 개체별 질병관리,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암소 28,399마리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현재까지 으뜸암소로 2,000여 마리를 선별하고, 으뜸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600여 마리에 대하여 혈통등록 및 모근채취로 친자감별을 실시



하는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3,000마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속적인 우량 한우로의 종자 개량을 통해 한

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무안한우 명품화를 통한 농가 고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함평 단호박 일본에 수출된다

### 96톤 9천600만원 규모

'함평 단호박'이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함평군은 15일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함평 단호박이 지역 유통업체인 천지영농조합법인(대표 정대성)을 통해 일본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1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각 48톤씩 총 96톤이 부산항을 통해 수출된다.

앞서 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8톤 1억5천600만 원 규모의 단호박을 일본에 수출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일정이 불투명했지만 양국 당사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96톤 9천600만 원 어치의 함평 단호박을 이번 수출기로 했다.

현재 함평 단호박은 지역 230농가 166ha에서 연간 3천900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다. 농가 소득규모로는 79억 원 수준이다.

군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기재배 생산장려금, 종묘대지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만, 싱가포르, 바이어와도 적극 협상에 나서는 등 일본 외 수출판로를 다양화하는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는 1.4kg 미만의 미니 단호박만이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어 그 이상 크기의 단호박은 사실상 판로가 막혀있었다"면서, "이번에 수출되는 품목 모두 1.4kg 이상의 단호박인 만큼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 영암군, 깨끗한 동네 만드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 분리배출 취약·환경관리 어려운 9개 마을 대상



영암군에서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적절히 배출하고 관리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

고자 영암군 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을 9개 마을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재활용 동네마

당'은 분리배출이 취약하고 쓰레기 배출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환경관리가 어려운 마을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수거일까지 보관하는 거점 수거시설이다.

영암군은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군비와 국비 약 13백여만 원을 투입해 영암읍 쌍정마을, 삼호읍 용두마을을 비롯한 9개 마을을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 하였다. 시설은 비가림 시설과 함께 일

반쓰레기, 재활용품 5종을 분리해 배출할 용기를 배치하고,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CCTV와 야간 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한 야간 조명 시설, 탈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썰레기 배출 편의성을 도모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조성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심지역과 달리 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이 없는 농촌마을 주변에 썰레기가 불법 투기되거나 받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증진과 마을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거점 수거방식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회의

### 방문 판매업·소규모 종교시설·요양시설 등 방역 강화

목포시는 1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광복사, 금양빌딩, 고시학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일 생활권인 전남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지난달에는 목포시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지역민 감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6월 29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지난 7월 3일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의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 7월 7일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밀접접촉이 잦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방문판매업, 소규모 종교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광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모든 군민에게 여름용 마스크 배부

### 덴탈 마스크 1인 3매씩

영광군은 인근 광주광역시, 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군에서 최초 확진자 발생으로 군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4일 여름철 습취기 편한 덴탈 마스크를 모든 군민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3~14일 마스크 16만여 장을 군민 5만 4천

여 명에게 배부하기 위해 영광군 의용소방대원, 영광학부모연합회원 등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소분 포장작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배부하는 여름용 마스크는 ㈜영창에스엔티(대표 김영백)가 무더운 여름철 습취기 편한 3중 부직포 마스크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영광군에 기부한 5만장에 군에서 추가 구입한 11만여 장을 더해 군민 1인당 3매씩 배부하

며, 이장과 담당공무원을 통해 세대주에게 가구원 수대로 전달된다.

이 밖에도 군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하여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영광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주 토, 일요일 관내 주요도로 입구에 '드라이브 스



루'를 통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